

心
理
建
築

建築物은 건축물을 設計 또는 施工을 하는 사람과 그 건축물을 所有하거나 使用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建築物이 좋은 건축물이나 아니냐는 우수한 人力을 얼마나 투입하였는지에 따라, 또는 사용하는 사람 혹은 제3자들의 건축물에 대한 精神的 내지 物理的 뒷받침이 얼마만큼 든든하였는지에 따라 판가를 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면 하나의 건물 혹은 건축물을 놓고 좋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즉 建築主, 또한 이것을 만드는 사람 - 設計者와 施工者가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하기가 일쑤이고 同床異夢을 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중에서 建築主와 設計者간에 하나의 건축물을 놓고 進行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는 좀더 이랬으면 하고 늘 생각하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한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高速化되어가는 생활이라 10년이면 時代가 변화해 가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新世代化되어가고 있지만 유독히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建築分野는 깊은 늪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우선 첫째, 상대자가 建築主라는 대상들이고 또한 작업하는 것이 도구가 아닌 設計者 혹은 建築士라는 사람들이 -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있지만 -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는 이러한 현대에 살고 있는 복잡한 社會의 구조로 인한 문제 즉, 일제식민지시대, 해방과 혼란기, 6.25동란, 제1~6공화국까지의 4.19, 5.16, 12.12 등의 사건, 이러한 모든 것이 복잡한 시대적 구성에서 正道 아닌 邪道에 의한 바, 쉬운말로 어느 줄잡기, 굵은 밧줄 잡기, 혹은 줄 갈아타기 등등 타잔의 시대가 계속되어 온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각기 다른 타잔교육을 - 건축 교육 또한 마찬가지였다 - 받은 탓도 있는 것 같고,

셋째로, 文化에 대한 배경 즉,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建築設計活動이란 결국 西洋文化를 받아들인 근대, 현대 건축문화로서 이러한 것들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세계를 지배하였던, 혹은 한 시대를 이룩하였던 - 종속되지 않았었고 식민지화되지 않았던 - 민족들이 이룩하여 온 文化를 잡자기 받아들이어 소화하려는 행위에서 근세의 소화불량 내지는 설사를 하는 시행착오의 부작용 탓도 있는 것 같고,

네째로는 사회에서 建築의 歷史的 背景의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즉, 과거에 조상들은 유교사상에서 오는 士農工商에 대한 사회적 계급의식에서 전문직에 대한 어휘조차 “장이”라는 단어를 썼다. 예를 들어 미장이, 석수장이, 땡장이, 대장장이, 환쟁이 등으로 불리웠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와서까지도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기를 - 대부분의 건축주가 - 자기에 종속된 관계, 혹은 업자,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시키면 하는 사람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머리 속 한 구석에는 잠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다섯째로는 이러한 생각 - 建築主의 - 반면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建築士로서는 반대로 作品을 하는 사람, 아이디어맨, 社會내지 都市環境구축자, 造形美를 창작하는 사람 등으로 自己自身이 우위화하는 자부심 속에서 상반된 생각에 좋은 건축물이 이루어지리라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행하여지는 요즈음의 建築士의 社會的 活動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지위향상이 아닌 격하의 일로를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고, 덕분에 과거 어느 때 보다는 건축을 하는 모든 이들은 더욱 보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난 몇년 사이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결국 건축인들에게 많은 보람을 안겨 준 것보다 “기이한 부조리”와 이에 따른 건축인들의 지위격하만 가져다 준 것 같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상설계”란 허울좋은 애드버문을 띄어놓고, 여기저기에서 마치 X개들을 훈련시키는 양, 희롱 농락하는 행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훈련받는 분위기 속에서 헉헉 짊어대는 - 비유가 무척 아하지만 - 우리(?)들의 일감이란... 마치 안개 속을 헤메는 어린 양들과도 같은 기분에 가끔 정신없이 일하던 양에게가 축 늘어지곤 한다.

꼭 이렇게만 생활하여야 하나 하고 반문하여 보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피압박 민족의 근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사회조직 -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 속에서 책임지기 싫어하고 自信을 가지지 못한 建築主들의 하수인 손에 열심히
놀아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요즈음에 와 생각하여 본 것으로 “心理建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았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5천억시장이라는 건축설계用役業種에서 建築主와 建築士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처음에 이야기하였듯이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건축주)의 심리부터 연구하고
파악하여 이 복잡한 함수관계의 실마리를 풀지 않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요즈음 겨우 깨닫게 된 것 같다.

우선 현상설계를 집행하는 建築主의 心理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좋은 建築士를 자기 힘으로 찾을 수가 없다.

둘째, 建築士를 믿을 수가 없다.

셋째, 자기의 哲學이 없다.

넷째, 조직 속에서 오해 받기 싫다.

다섯째, 타인의 압력내지 청탁으로부터 피하고 싶다.

여섯째, 좀 더 색다른게 없다.

일곱째,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여덟째, 돈 안들이고 많은 案을 볼 수 있다.

아홉째,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열번째에 가서야 겨우, 좋은 案을 채택하고 싶다.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현상설계를 택하는 것 같다.

建築三團體에서 현상설계 경기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이런 설계경기에 참여하는 건축인들은, 나를
포함해 이러한 건축주의 사기술에 말려들어 웃도리 벗고, 바지 벗고, 내의 벗고, 나중에는 알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춤을 추고 끝에 가서는 돈도 못받고 외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불만(?)내지 불평 한번 건축주에게 제대로 못해보고 “다음에 기회있으면 또
부탁하겠습니다”하고 씩씩히 돌아서는 수가 고작인 것 같다. - 나의 경우 -

무엇이 작품이고 무엇이 창작활동인지, 허울좋은 밀가루 반죽에 기생화장하듯이 하여 어깨, 목에
힘만 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에 - 의문이 가지만 - 우리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까지 뛰한다고 요즈음에는 별의별 군데에서도 전화가 걸려와, 일을 주고
싶으니 설계사무소장 내일 몇시까지 어디로 들어오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인사말로 “알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또 한번 사기 당하는군”

다음날 아까운 휘발유만 버리며 방문하여 보면 해괴한 발상을 하여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그러면 작업을 하는 대가(설계비)를 이야기하면, 뒷사람의 마음에 들면
그때가서 생각해 보겠다. 억지충항적으로 “네, 알겠습니다.”하고 돌아 나서다 나와 입장이 똑같은
다른 건축사무소 소장 - 대장이 아닌 - 님께서 시간차공격이 어긋나 현관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XX집에 혼자 몰래 갔다가 친구를 만난 기분으로 이상한 웃음에 인사말만 하고 헤어지는
기분이라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곤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는 당연한 것 같이 되어가고, 또한 그러한 속에서 발버둥쳐서, 재주를 부려
일을 - 건축물의 설계가 아닌 - 하게 되었다는 것이 당연하기라도 하는 풍토가 무인가 씩씩하기만
느껴지곤 한다.

결국 지금까지 상대방(建築主)의 일방적인 단점만을 - 전부는 아니지만 - 나열하였지만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너무나 순수하고 일밖에 모르는 무지한 建築人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곤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社會에서 정당한 待遇와 정당한 報酬, 우수한(?) 建築物의
設計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른 모든 지위는 우리를 자신이 찾았어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희롱당한 것이 분하기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心理建築에 더욱 더 몰두하여
볼까 한다.

요즈음에 와 생각하여 본 것으로
“心理建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았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5천억시장이라는
건축설계用役業種에서 建築主와
建築士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처음에 이야기하였듯이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건축주)의 심리부터
연구하고 파악하여 이 복잡한
함수관계의 실마리를 풀지 않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요즈음 겨우 깨닫게 된 것이다.